관세음보살의 보문시현 되새기며…

조해종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展
부산 이젤갤러리 4월 12일~24일

다양한 시공간의 중생들 구제 그려
옻지 · 분채 활용 친근한 모습 표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관세음보살 의미 되새기는 기회로"


조해종 작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이수자이자 故 석정 스님의 제자인 조해종 작가가 일곱 번째 개인전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展을 연다.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이젤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15점을 선보인다.

관세음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깨달음을 얻을 능력이 있으나 자비심으로 중생 구제를 실천하는 존재이며,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대표적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광세음 · 관세음 · 관자재 · 관세자재 등으로 번역하며 줄여서 관음이라고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내용을 두고 있는데,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중생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덕을 준다. 이러한 현실구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로 신앙되어 그동안 수많은 관음보살상이 조성됐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특징은 제도할 대상에 맞게 여러 형태로 자유로이 바뀌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를 '보문시현'이라고 한다. 불(佛), 독각, 연각 등 32신 또는 33신으로 부른다.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감로병을 들고 있기도 하며 대개 여러 성의 모습으로 시현한다.

이번 전시의 관음도상 역시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모습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다양한 시공간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제도와 구원을 바라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재료로는 옻지와 분채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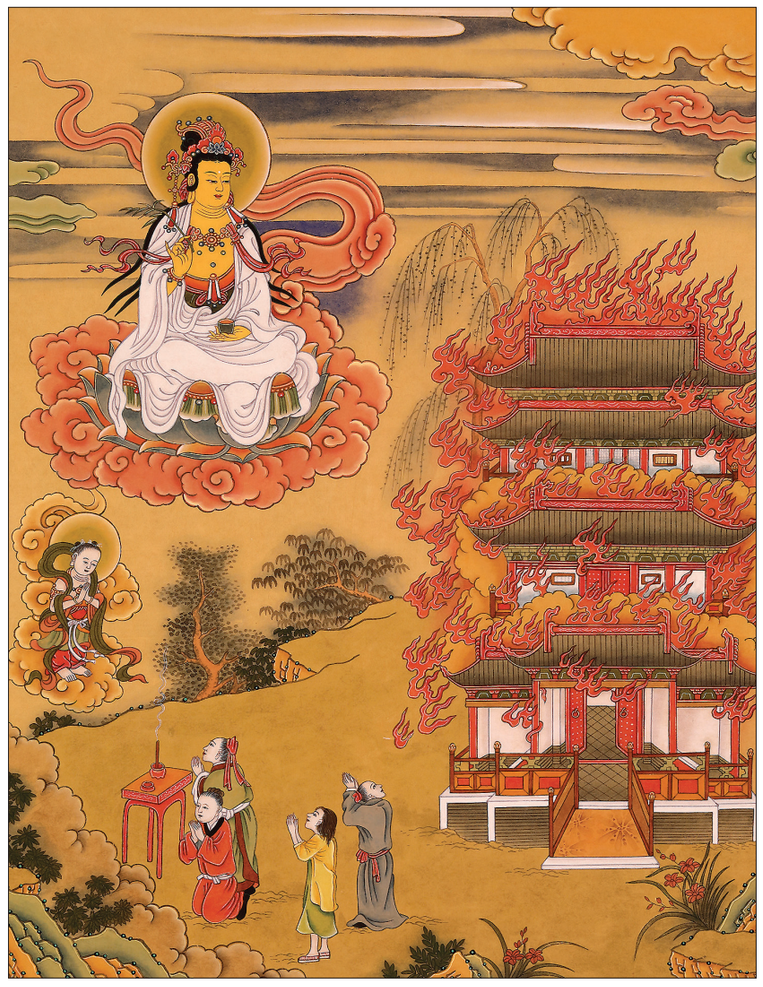
그 어느 때보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야할 오늘에서 조 작가의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 작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관세음보살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관세음보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은 "재가 불모 연당 조해종 거사는 일찍이 故 석정 스님을 가까이서 시봉하며 제자로서 불화장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당 거사는 평소 신앙심과 신행의 깊이가 남다른 불모였기에 그를 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가 이번 신축년을 맞아 코로나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초들과 내면의 수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불자님들을 위한 개인전을 연다고 하니,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고픈 심정입니다. 너나없이 우리들은 화택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고 하니, 거룩한 마음 가득합니다"고 축하했다.

조해종 작가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석사과정(석사학위 논문-불모 해봉 임석정의 불화세계)을 졸업했다.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 장려상 등 10여 차례 입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이수자이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 강사이며,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외래교수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심사위원(2003~2012) 등 여러 차례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12년 연당 조해종 초대전(통도사성보박물관)을 시작으로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051)753-4808


조해종 作,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6.

화엄사 제1회 사진콘테스트 수상자 선정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성료
화엄대상 신승원, 최우수상 허칠구
참가자 759명, 사진 1307 컷 접수

콘테스트 매년 개최, 전문가대회와
분기별로 프로젝트 조성할 계획도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화엄대상(교구장상)에 선정된 신승원의 작품.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던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를 성료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12일간 접수된 사진들은 전문 사진작가 2명 외 종무팀 포함 전문가 그룹 6명의 심사를 거쳤으며, 총 4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고상인 화엄대상(교구장상)에는 신승원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인 구례군수상에는 허칠구, 생명상인 신도회장상에는 이도기와 강희진, 코로나퇴치상인 구례보건소장상에는 이봉우 등 12명이 선정됐다. 가족상에는 정은영 등 10명이 선정됐으며, 하모니상에는 김태운 등 10명이, 매화상에는 손진숙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맞물려 일상이 힘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주효했으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모든 국민들에게 전통사찰에서 맛보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욱이 전문가 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과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카메라를 내세운 점은 많은 공감과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콘테스트 기간 중 접수 인원은 759명, 출품 사진은 1307컷으로 집계됐으며 총 접속자수는 1856명으로 집계됐다.

화엄사는 4월 3일 수상자들을 화엄사로 초청해 화엄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사진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해 화엄사와 구례군을 홍보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사진 전문가 콘테스트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주지 덕문 스님은 "천년도량의 위용과 함께 지리산의 기운을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었다. 더불어 화엄사가 위치한 구례군과 인근 화개에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모습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진정한 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실례가 되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화엄사는 이번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를 시작으로 각 분기별로 지리산 화엄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조성해 종교를 넘어선 화합의 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BTN불교TV, 제3회 폰사진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
스님서 일반인으로 확대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폰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오는 5월 30일까지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회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폰사진 공모전은 지난 1, 2회에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3회부터는 참가자 기준을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는 '스님들만 응모 가능하다는 것이 아쉽다',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모전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공모전 주제는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사찰과 수행, 스승 · 도반 · 신도,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이며, 응모는 휴대전화로 찍은 폰사진을 BTN모바일 · PC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규격은 10Mb 이하 JPG 파일이며 1인당 3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초빙 심사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총 10점이 선정되며, 6월 말 BTN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상 1점에는 상패와 상장, 상금 200만원, 사장상 1점 상패와 상장과 상금 100만원, 금상 1점에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은상 2점에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동상 5점에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BTN 채널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BTN 본사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참가자 기준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서 이번 제3회 폰사진 공모전은 더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